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하느님을 재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침묵 속에 감추인 그 지혜는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서만 열립니다.

눈이 본 적 없고
 귀가 들은 적 없는 선물이
 오늘도 우리 안에 조용히 숨 쉬며,
 성령께서는 그 깊이를 비추십니다.

바깥의 소음이 잦아들 때,
 하느님의 신비는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사랑을 믿어라.”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이미 그 지혜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2/04/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47,655

현재 참가 인원 - 103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가진 옷마저 벗어버린 가난의 삶

최초의 탁발수도회 설립, 평화의 사도로 사명 다해

"저는 저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는 더 이상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Pietro Bernardone)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 저의 아버지였던 분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저는 빈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1206년 이탈리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청년은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입고 있던 옷마저 돌려주면서 이같이 가족들과의 이별을 고했다. 그로부터 시작된 「가난과 복음 전파의 삶」은 지금껏 너그러움, 단순하고 천진한 신앙심, 신과 인간을 향한 헌신, 자연에 대한 사랑과 진실한 겸손의 모습으로 사람들 안에 전해져 오고 있으며, 「중세기에 나타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평화의 기도』, 『태양의 노래』 등 주옥같은 기도문으로도 친숙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1182?~1226)는 교황 비오 12세로부터 「또 하나의 그리스도(alter Christus)」로 불릴 만큼 복음 정신을 따르는 청빈과 무욕, 무소유의 모습을 보인 성인이다. 또한 그러한 가치는 최초의 탁발수도회인 프란치스코회 설립과 함께 800여 년의 역사가 되어 세상 안에 함께하고 있다.

1181년 혹은 1182년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의 소도시 아시시 태생인 프란치스코는 포목상을 하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와 피카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시시라는 도시 출신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이다. 그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한 부모의 영향 아래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에 길들여져 있었다. 그는 부유한 부모가 제공하는 물질적인 풍요를 즐기면서 자랐고, 그 역시 부모보다 오히려 더 그러한 세계를 추구했었다." (Thomas von Celano,

「Erste Lebensbeschreibung des hl. Franziskus」, Nr.1)

생애 전반부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이 문장에서 엿보듯 프란치스코는 젊은 시절 유복한 생활을 했고 화려한 옷과 향락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페루자와 벌어진 전투에 참여했던 프란치스코는 1202년부터 1203년까지 포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됐고, 1205년 다시 한 번 전투에 참여했을 때 하느님으로부터 일련의 계시를 듣게 된다. 무기와 전쟁 도구들로 가득 찬 궁전과 성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이 모든 것이 너와 너를 따르는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음성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계속해서 "프란치스코, 종과 주인 중에서 누가 너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당연히 주인입니다"라고 답한 프란치스코에게 "그럼 너는 왜 종을 따르느냐. 아시시로 돌아가서 기다려라. 그곳에서 너에게 나의 뜻을 알려주마"라는 내용이었다.

꿈속에서의 체험은 프란치스코의 생애에 상당한 전환점이 되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주었다. 아시시로 돌아온 그는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에 몰두하였고, 어느 날 아시시산 근처 성 다미아노(San Damiano) 성당에 있는 십자가상으로부터 "가서 무너지려고 하는 나의 집을 돌봐라"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 글자 그대로 허물어져 가는 성당을 고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프란치스코는 성 다미아노, 포르티운쿨라, 성 베드로 성당들을 차례대로 고쳐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과제가 「교회의 내적인 삶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소명을 깨닫게 된다.

가진 옷마저 벗어버리며 하느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천명한 그는 1208년 성 마티아 축



일에 사도들의 파견에 관한 복음 말씀, 즉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 것이며 식량 자루나 여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고장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라는 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걷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됐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됐다. 그것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청빈한 삶이었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었으며 또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 무렵 자신을 따르는 동료들이 생겨나면서 함께 움막 생활을 하던 프란치스코는 다시 한 번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던 중 성서를 세 번 펼쳤는데, 이때 발견한 구절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이때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미래의 우리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여!"라고 외쳤고, 함께했던 동료들은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서 생생히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지 사항

1 미사 안내

① 설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 2/15(주일) 오전 9시30분/연도
오전 10시/교중 미사
미사 후에 떡국 잔치가 열리며, 구역별 대향 옷
놀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일 오전 8시, 11시 30분, 오후 5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②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 일시 : 2/18(수) 오전 10시, 오후 7시 미사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이
날 교회는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머
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날 단식과 금
육을 해야 합니다. (노약자, 환자, 군인은 관면
됩니다.)

2 십자가의 길 기도

● 일시 : 매주 금요일 10시 미사 후
'재의 수요일' (2/18)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 (4/2)까지 사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예수
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파스
카 축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사순시기 동
안 금요일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
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Rice Bowl

사순시기 동안 Rice Bowl을 채워서 성당에
가져오시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될 것
입니다. 4/26(주일)까지 기부를 받을 예정이
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사순 판공성사

● 일시 : 모든 미사 30분 전,
매주 금요일 저녁 7:00 -9:00까지
판공성사가 진행됩니다. 성사 후 고해소 내 바
구니에 판공 성사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역 음식 봉사

● 일시 : 2/22(주일)
● 음식 봉사 : Bothell 구역
● 메뉴 : 소불고기 덮밥

6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7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 7/1/2025 - 8/31/2026
대상 : 전신자

8 청년회 2026 사순피정

- 일시 : 3/20(금)-3/22(주일)
- 장소 : Lake Retreat, 27850
Retreat-Kanaskat Road,
Ravensdale, WA 98051
- 대상 : 청년
- 참가비 : 학생 \$60, 직장인 \$80
- 신청 마감 : 3/1(주일)까지
- 문의 : 청년회장 김스텔라
425-368-8814



9 봄학기 성경 공부반 모집

① 축복받은 성경 읽기

- 대상 : 참여하고 싶은 모든 분들
- 모집반 : 마르코 복음반
주 1회 부담 없이 모여 성경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

② 가톨릭 성서 모임 그룹 공부

- 대상 : 각 전 단계 공부를 마친 분들.
- 모집반 :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모임 시작 : 그룹별로 추후 연락.
- 신청 : 본당 사무실
- 신청 기한 : 2/20(금)까지
- 담당 : 교육분과장 최정필 미카엘

입당송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1독서.....집회 15,15-20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제2독서 1 코린 2,6-10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미
리 정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
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 5,17-3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
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연중 제4주일(2/1)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4명	67명	274명	116명	23명	525명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416 예물 준비 성가 : 219, 221 성체 성가 : 170, 171 파견 성가 : 423

교황청 신앙교리부

구원 사업에서 마리아의 협력과 관련된

마리아의 일부 호칭에 관한 교리 공지

충실한 백성의 어머니 (Mater Populi Fidelis)

〈지난주에 이어서〉

10. 제일천년기 동안 교회 안에서 동정 마리아에 대한 성찰은 전례와 결코 분리될 수 없었다. 동방 그리스도교 전례 전통들의 크고 풍부한 다양성은 성경, 공의회들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반향하고자 하였다. ‘신앙의 법칙’(lex credendi)으로 발전한 ‘기도의 법칙’(lex orandi)은 찬미가, 이콘 도상학, 대중 신심을 통하여 동방 교회의 마리아론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5세기부터 마리아 축일들이 동방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7세기부터 서방으로 퍼져나갔다. 동방 교회들은 감사 기도와 성찬 전례 안에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동방 그리스도교의 다양한 전례 전통에 존재하는 법정 시간경에서 사용하는 찬미가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어머니의 구원 사업 참여를 기념하였다. 그들의 찬미가는 성경 우의(biblical allegories)(* 역자 주: 성경이 말하는 실재와 사건들을 성경 문장의 자구적 의미를 넘어 그리스도와 그분 강생의 신비를 드러내는 예표로 이해하는 해석 방식으로서, 교회의 전통에서 특히 풍성하게 드러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우의적 의미를 통하여 성경의 사건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115.117항 참조).)와 더불어 마리아께 바치는 작품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를 통하여 강생의 근본 신비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 구원을 위한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찬미가들은 시적 상징으로 가득 찬 언어를 사용하여, 마리아와 같은 본성을 지니는 이들이 전능하신 분께서 마리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며 느끼는 경이로움과 경탄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11. 초기 세계 공의회들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교의를 정립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에페소 공의회에서 이 교의가 선포되었다. 동방 그리스도교는 적어도 에페

소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를 받아들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초기 공의회들에서 규정된 교의들을 언제나 지지해 왔다. 또한 동방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유년기와 죽음을 언급하는, 마리아에 대한 대중적인 이야기와 전설을 전례와 찬미가와 이콘 도상학의 전통 안에 받아들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로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의 서정적인 시적 심상에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신심을 키우려는 것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공경은 성모 마리아와 사람이 되신 말씀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이콘 도상학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에페소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와 연관된 이들 교회의 전통 이콘들이 대부분 마리아를 ‘테오토코스’(하느님의 어머니)로 묘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당신 아드님이신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 주시고 당신 품에 안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인류를 위하여 전구하시는 동정 성모님을 관상하고자 이러한 이콘들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동방의 마리아 이콘 도상학은 초기 공의회들과 교부들의 신학을 시각적으로 다채롭게 일깨워 주는 첫 선포(kerygma, 케리그마)로서, 동정 마리아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호칭들을 시각적으로 옮기고자 한다. 이러한 까닭에, 그러한 이콘들은 교회의 전례와 찬미가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 옆에 자리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강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들어가게 된 분이다.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흠숭받으시는 표상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시는 동정 성모님, 곧 테오토코스이다. 이와 동시에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손으로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시는 ‘길의 인도자’(Hodegetria, 호데게트리아)이시기도 하다.

12. 12세기부터 서방 신학은 동정 성모님을 골고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구속 신비

와 연결하고 칼에 대한 시메온의 예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시키는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십자가 아래에 계신 마리아의 모습은 모성애로 가득 찬 그리스도교적 용기의 표징으로 여겨졌다.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신 것에 대한 주해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구속 희생에 협력하셨다고 이야기한다. 베르나르도 성인의 벗이었던 베네딕토회의 본네발 수도원장 아르날도(†1159년 이후)가 마리아께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골고타 희생 제사에 협력하신 것에 대하여 처음으로 고찰하였다.

13. 교회의 교도권은, 구원 사업에서 성모님께서 아드님께 협력했다고 가르쳐 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밝힌 대로, “거룩한 교부들이 마리아께서 순전히 피동적으로 하느님께 이용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앙과 순종으로 인류 구원에 협력하신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 협력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잉태, 탄생, 죽음, 부활)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14.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는 구속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수위성과 유일성을 강조한다. 이 교의는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신 마리아께서 당신 자신의 그 어떤 행위에 앞서 그리스도께 구원받으셨고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구원받고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이 특별한 조건에 따라,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의 원형이자 모범, 본보기가 되시어, 그리스도와 성령께 더욱 열렬하고 깊이 협력할 수 있다.

15. 구원 사업에 대한 마리아의 협력은 삼위 일체적 구조를 띤다. 이 협력이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신]”(루카 1,48) 성부께서 주도하신 일의 결실이고,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신 성자의 자기 비움(kenosis, 케노시스)에서 비롯된 것이며(필리 2,7-8 참조), 나자렛의 젊은 여인 마리아의 마음을 준비시키시어 주님 탄생 예고에 응답하게 하시고 전 생애에 걸쳐 아드님과 친교를 나누도록 이끄신 성령께서 베푸신 은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루카 1,28,30 참조).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원으로부터 마리아를 택하시어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성령의 은사로 꾸며 주신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예”는 그분의 동의와 협력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어떤 일의 단순한 전제 조건이 아니다. 마리아의 모성은 그저 생물학적이거나 본성상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당신 구원 계획에 따라 뜻하신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에 결합된 “완전히 능동적인” 모성이다.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서 태어[난]’(갈라 4,4) 참사람이심을 보증하시는 분”이시고, 니케아 교의가 선포된 이래로 “하느님을 낳으신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신다.

구원에서 마리아의 협력을 가리키는 호칭들

16. 마리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여러 호칭들(‘자비의 어머니’, ‘가난한 이들의 희망’, ‘신자들의 도움’, ‘영원한 도움의 성모’, ‘변호자’ 등) 가운데에는 ‘공동 구속자’(Co-redemptrix)와 ‘중개자’(Mediatrix)처럼 그리스도의 구속 활동에 대한 마리아의 협력을 더욱 강조하는 호칭들도 있다.

공동 구속자

17. ‘공동 구속자’(Co-redemptrix)라

는 호칭은 15세기에 처음 등장하였다. 이는 10세기부터 마리아에게 붙여 온 ‘구속자’(Redemptrix, ‘구원자의 어머니’라는 호칭의 축약형)라는 호칭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마리아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하신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이것이 15세기 잘츠부르크의 익명의 찬미가에 처음 등장하는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의 기원이 되었다. ‘구속자’라는 호칭은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지속되었지만, 18세기에 이르러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으로 대체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20세기 전반에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마리아의 협력에 관하여 신학적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이 의미하는 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18. 일부 교황들께서는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으나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그 교황들께서는 이 호칭을 두 가지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어머니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점에서) 마리아의 신적 모성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마리아께서 구원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이루신 일치를 가리킨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의적, 사목적, 교회 일치적 이유로 이 호칭의 사용을 삼갔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마리아를 적어도 일곱 차례에 걸쳐 ‘공동 구속자’라고 언급하시고, 특별히 이 호칭을 우리 고통의 구원적 가치와 연결 지으셨다. 우리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 봉헌될 때 구원적 가치를 지니고, 마리아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통에 특히 십자가 아래에서 일치를 이루신 분이다.

19. 1996년 2월 21일 수요일에 있었던 회의에서,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이었던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은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 또는 ‘모든 은총의 중개자’(Mediatrix of All Graces)로 선언하는 교의를 결정해 달라는 운동(Vox Populi Mariae Mediatrici)의 청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라칭거 추기경은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호칭들의 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하고, 그 안에 담긴 교리는 아직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믿음에 관하여 규정된 교리는 ‘신앙의 유

산’(Depositum Fidei), 곧 성경과 사도 전승으로 전해지는 하느님 계시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호칭들에 표현된 교리가 성경과 사도 전승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후 2002년에 라칭거 추기경은 이 호칭 사용에 반대하는 자신의 견해를 공공연히 표명하였다. “‘공동 구속자’라는 표현은 성경과 교부들이 사용한 언어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 특히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과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이 우리에게 알려 준 대로, 모든 것이 그분[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따라서 마리아도 그분을 통하여 지금의 마리아가 되신 것입니다. ‘공동 구속자’라는 표현은 이러한 기원을 모호하게 할 것입니다.” 라칭거 추기경은 이 호칭을 사용하자는 제안에 좋은 의도와 가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의도와 가치가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0. 그 당시 라칭거 추기경은 에페소서와 콜로새서를 언급하며, 그 서간들에 나오는 찬미가들의 어휘와 신학적 역동성이 강생하신 아드님의 유일무이한 구원 중심성과 근원을 다룬 어떤 중개를 더할 여지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온갖 영적인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에페 1,3)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로 입양되었고(에페 1,5 참조) 그분 안에서 은총을 받았으며(에페 1,6 참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 받았[고]”(에페 1,7), 그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도록”(에페 1,8) 베풀어졌다. 또한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몫을 얻게 되었[다]”(에페 1,11).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고]”(콜로 1,19),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다]”(콜로 1,20).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지위에 대한 이러한 찬양은, 모든 피조물을 그분과 이루는 관계에서 분명히 수용적인 위치에 두고, 구원 영역에서 그분께 협력하는 어떤 가능한 형태를 제안할 때에는 언제나 신중하고 경건한 자세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다음주에 계속〉